

■ 피델 이후의 쿠바: 안정, 운동, 개혁

안토니 캡시아

2008년 2월 19일 피델 카스트로는 새로 선출된 국가평의회 명단에서 성명을 삭제함으로써 쿠바 평의회의장직(32년간 재임)과 쿠바혁명 지도부(49년간 재임)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2006년 7월 31일 수술 기간에 일시적으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했을 때 사임한 것이다. 아무튼, 비공식적인 사임은 시기와 방법에서만 뜻밖이었는데도, 전세계의 언론, 특히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대다수 미국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사임결정, 빈틈없는 권력승계, 쿠바인들의 차분한 반응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피델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다.

쿠바 정치변동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피델의 사퇴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 측면, 즉 사임, 권력이양, 수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결정 시기

모두들 피델 카스트로라는 인물은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이며, 충성스러운 권력기관에 둘러싸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통념으로 보면 피델의 사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쿠바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 사실 2000년 무렵부터 피델이 10년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리라고 예상했다. 그 시기는 대략, 쿠바혁명

50주년이자 비동맹운동 의장 임기가 끝나고 미국에서는 부시가 물러나는 2009년쯤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예상은 부분적으로는 피델의 건강악화라는 공개적인 증거에서 나왔으나, 현실적인 고려가 더욱 크게 작용했다. 다시 말해서, 피델로서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1953부터 시작된 혁명기획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예민한 역사 감각을 지녔기에 확신했을 것이다). 사실, 2005년에 이르면 공산당원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이 공공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경제상태가 호전속도도 더디고 성장율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이후 피델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쿠바사람들은 한결같이 피델을 걱정하면서도 초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차기 지도자 결정 문제가 오랫동안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라울이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희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믿었다.

라울 카스트로의 중요성

누가 쿠바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해외에서는 단 순화시켰다. 특히 피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권력승계’를 쿠바혁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976년 첫 선거가 실시된 이래 헌법상 후임자는 라울 카스트로였다. 오로지 라울이 거부할 경우에만 2008년에 다른 사람은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둘째, 라울이 쿠바혁명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이번 승계는 필연적이었다.

1953년 7월 26일, 피델이 이끄는 젊은이들이 몬카다 병영을



라울 카스트로(왼쪽)와 체 게바라(오른쪽)

공격했을 때부터 라울은 피델과 모든 일을(습격 계획과 실행, 이후의 투옥과 망명) 함께 했다. 그리고 1956년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로 건너와 봉기했을 때나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2년 동안 게릴라 활동을 할 때 라울은 자기 부대를 지휘했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에는 ‘이너서클’의 핵심 멤버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개혁을 단행했으며, 새로 조직한 쿠바혁명군(FAR)을 지휘했다. 그동안 라울과 피델 사이에 이념적 차이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피델과 관계에서 라울에 필적할만한 지도자는 체 게바라뿐이었다. 따라서 2006년 피델의 승계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라울은 대단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자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라울에게는 이러한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유일무이한 기반이 있었는데, 바로 쿠바혁명군이다. 쿠바혁명군은 수십 년 동안 효과적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아프리카 동맹국을 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격퇴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부패가 없다는 평판을 얻었기에 쿠바에서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이 점에서 여타의 라틴아메리카 군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쿠바혁명군은 라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라울은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

이처럼 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탓에 국외에 비친 라울의 이미지는 ‘강경파’와 ‘이데올로그’였다. 라울에게는 이밖에도 세

가지 요소가 더해진다. 첫째, 1953년 라울은 인민사회주의당(사실상의 공산당)의 사회주의청년단에 속해 있었으며, 학생시절 동구를 한번 여행했다. 이때는 피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라울에게는 위험한 ‘빨갱이’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쿠바혁명이 좌편향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둘째, 게릴라로서 그리고 쿠바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라울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라울은 1959부터 1961년까지 소비에트연방과 접촉하여 밀접한 우호관계를 주도했다. 이러한 관계는 쿠바혁명군이 소비에트 무기와 훈련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라울은 유연하고 개혁적인 정치가로도 알려졌다. 예를 들어, 1980년대는 일본인 경영전문가를 고용하여 쿠바혁명군 조직을 슬림화했다. 그리고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선두에서 미증유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미국 달러화 도입, 자영업과 협동농업의 허용, 은행업 개혁, 설탕산업 대신 관광사업 장려) 외관상 수명이 다한 혁명을 되살려냈다. 라울의 목표는 분명했다. 혁명의 수호였다. 이를 위해 라울은 무엇이든 시도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라울은 오래전부터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쿠바 경제에 절실한 것도 효율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2006년에 수많은 쿠바인들은 라울을, 피델이라면 어림도 없을 개혁을 단행하여 쿠바 경제를 바로잡은 인물로 보게 되었다.

라울이 비록 구조, 조직, 효율성을 믿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당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몇몇 비평가들은 라울의 이런 성격을 ‘관료적’이라거나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라울의 신념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태동한 것이다. 즉, 쿠바의 경제사회적 진보는 혁명 특유의 국민동원이나 사회운동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구조가 책무를 부여하고 쌍방향 소통의 통로를 마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원 대 구조

이 점은 중요한데, 1959년 이후 쿠바에서는 이른바 ‘열광적인 동원을 통한 참여’와 ‘구조를 통한 참여’가 번갈아가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보통은 개인적 선호나 파벌 투쟁이나 외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쿠바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적 활성화(특히 위기가 닥치거나 사기가 저하되거나 민족주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와 안정과 물질의 시기(안정은 영혼을 만족시키고 물질은 육신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오랫동안 추구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기 마련이다)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아야 옳다.

과도한 동원의 단점은 효율성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충실한 지지자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결정만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정의 단점은 타성에 젖은 관료제(종종 특권이나 경미한 부패로 이어진다)와 정치적 열의의 상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피델이 동원을 선호했다거나 라울이 구조를 선호했다고 말하면 지나친 단순화이다. 두 사람 모두 때로는 이 방식을, 때로는 저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5년에 이르면, 1990년 이래 쿠바가 거쳐 온 도정 때문에 ‘안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진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반드시 참조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사회주의 블록과 소비에트연방이 무너

진 이후 쿠바는 압력과 도전과 논쟁에 시달렸으며, 이미 포위된 정치 체제에 치명적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쿠바는 단순한 생존전략으로 시급한 부문의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1994년에 이르면 이러한 개혁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엘리안 곤살레스 소년이 귀환한 직후인 2000년 7월 1일 쿠바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군중집회에 참석한 쿠바인들

한다. 1995년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쿠바 체제는 섬뜩한 아마겟돈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5년간은 체제에 대한 내부논쟁의 시기로,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모든 혁명조직이 논쟁을 벌였다. 이런 요소는 보존해야 할 혁명적 요소이며, 저런 요소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국가주도 경제(반드시 국영일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 확충, 민족주의적 시각의 강조라는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쿠바는 앞서 말한 구조와 동원 가운데 ‘동원을 통한 참여’의 시기로 나아갔다. 그 첫 번째 사례가 1998년 1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이었다. 교황 환영행사는 고립에 종지부를 찍고 쿠바혁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신호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단결의 계기이기도 했다. 두 번째 사례는 놀랍고 지속적인 대중 동원으로, 미국에서 엘리안 곤살레스(Elián González)를 송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 시위로 이른바 ‘사상 투쟁’ 시기가 시작되었다. 사상투쟁은 청년 주도의 동원, 청년 조직의 활성화, 수천 명의 ‘교육혁명’ 참여를 통해서 신세대를 충실한 지지자 반열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기에, 청년들은 1990년 이후에 도래한 가치 경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위협, 세계화의 도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무장되었다.

사상투쟁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례로 긴급 학교 건립, 수천 명의 교사, 사회봉사자, 간호사 양성,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동맹 강화, 예전 원조 중심의 인터내셔널리즘의 부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생도 뒤따랐다. 특히, 지속적인 동원은 1990년대 충성을 다한 당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켰기 때문에 당을 경시하는 결과가 되었다(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2002년 소집하기로 계획한 국가평의회는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동안 체제는 정체기를 맞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통의 문제, ‘안정된 동참’(집단적 캠페인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동참’과는 구별된다)의 문제, 긴요한 생필품 보급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체제의 생명

따라서 누가 평의회 의장이 되든지 간에, ‘안정화’ 시기가 손짓하고 있었다. 2006년 7월 이후 라울의 지도력은 단지 안정화의 형태와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그 결과, 2008년 2월 이전에 당의 구조와 인원은 강화되고 있었으며(예전에 연기한 국가평의회 회의는 2009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규율의 문화가 다시 강조되었고(당, 참여활동, 노동실천, 그리고 범죄와 부패척결), 개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은, 예상하듯이, ‘자유화’가 아니다. 쿠바의 광범위한 사유화 또는 자본주의 지향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주변부에 국한된 이야기다(상품보급, 주택의 여유, 임금과 연금의 인상, 생필품 보급). 물론 쿠바는 식량생산 부문의 철저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지보유와 시장메커니즘도 당연히 개혁 대상이다.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이후의 정부는 상품의 배급과 서민경제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개선에 달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변화 요구가 비등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정치적 변화에 저항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나 기저에서(대부분의 쿠바인은 여기에 속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불만이 지속된다면 반정부로 돌아설 수도 있다.

따라서 개혁이 시급하다. 라울의 말에 의하면, 식량생산은 ‘국가 안보’ 문제인 것이다. 만약 경제적 변화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2007년 9월에 시작된 협의안이 2009년 국가평의회 회의에서 상정된다면, 쿠바체제는 아직도 생명력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친숙하고 또 독특한 쿠바체제의 장래를 결정할 2009년이라는 시한은 이미 정해졌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하다.□

[번역: 서라연]

안토니 캡시아(Antoni Kapcia) - 영국 노팅엄대학교의 스페인·포르투갈·라틴아메리카지역학과 교수이자 '쿠바연구센터' 소장이다. 저서로는 『쿠바: 희망의 섬 *Island of Dreams*』 (2000) 등이 있고, 편저로는 『쿠바시민사회의 역동성 *The Changing Dynamic of Cuban Civil Society*』 (2008)이 있다.
